

로컬리더스



전북 축산인 한마음 대회 개최

익산군축협 주관으로 11일 익산시 종합운동장에서 축산인들의 화합을 위한 제10회 전북 축산인 한마음 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한마음대회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유관단체장과 축산업 종사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 체육대회, 한마당잔치, 전북한우경진대회, 전북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축산기자재 전시회 등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한·미 FTA를 비롯한 시장개방의 가속화와 AI·구제역 등 각종 가축질병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격려하고, 농가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마련됐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수도권귀농학교 교육

익산시가 2016년 제2기 수도권귀농학교 교육을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익산시 성당포구 마을에서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귀농학교는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관심과 열정으로 신청자가 많아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이날 교육생을 맞이한 이지영 부시장은 "익산시는 귀농인 초기 정착을 위한 농업교육프로그램과 농가경영컨설팅, 농업보조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인생2막을 설계하기에 최적의 지역"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익산시로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늘고 있어 박람회, 수도권 홍보관 운영, 멘토컨설팅, 현장실습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경찰서 현장학습모임 '아리울 CS' 왕성한 활동 전개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 현장학습모임 '아리울 CS'가 일선 현장과 소통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아리울 CS'는 조직문화와 유연하게 만들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4월 결성됐으며, 36명의 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매주 월요일 학습모임을 통해서 '고객민족'과 '경찰문화' 개선을 이슈로 토의 후 과제를 실제로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은 변화가 군산경찰서 직무 만족도 향상은 물론 유연한 조직문화로 변모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 달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전북경찰청 대표로 학습모임 발표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연구지원비를 받아 군산서 청문감사실에서 운영중인 범죄피해자 돕기 지원 운영체인 '우리사이'에 전액 기부하여 귀감이 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익산시는 11일 저소득 청소년 300명에 게 3개월분(1,600만원 상당)의 보건위생 용품을 지원했다.

이지영 익산시부시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와 여성단체 회원 등 20여명은 정성스럽게 위생용품 포장작업을 했다.

시는 민간협력 사업인 익산시 저소득층 청소년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차로 이날 300명에게 보건 위생용품을 전달한 것.

정현을 익산시장은 "생활이 어려운 우리 청소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몸과 밝은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닭고기 산업의 대표주자' 하림, 창립 30주년

"백년을 향한 큰 그림 그릴 것"

'우리나라 닭고기 산업의 대표기업인 (주)하림이 11일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관련기사 16면>

(주)하림은 이날 익산시 망성면 본사 대강당에서 창업자인 하림그룹 김흥국 회장과 하림 이문용 총괄사장 등 임직원과 사육농가 및 협력업체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지난 1986년 전북 익산에서 하림식품으로 창업한 (주)하림은 농장 공간, 시장을 연결하는 '삼장통합경영시스템'으로 우리나라 닭고기산업의 선진화를 이끌어왔다.

(주)하림은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5년 매출액 7,940억여원, 연간도계수수 1억8천여만수, 제품수(신선/육가공) 800여종 등을 생산하는 국내 닭고기 1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주)하림은 이날 행사에서는 하림 발전과 함께한 우수농가와 우수대리점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하림30년의 주역인 장기근속자에 대한 근속패 수여 전달도 진행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하림30년의 역사를 담은 사시(耐史) '현정식' 행사도 이뤄졌다.

하림30년사에는 하림그룹 김흥국 회장에 대한 창업 이야기와 하림 이문용 대표이사의 파워 인터뷰가 담겨져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산기업이자 식품기업으로서 선도적인 역할과 육계사양 기술 및 도계가공설비의 변화, 동물복지, 사회공헌 활동 등 하림의 30년 역사를 담았다.

하림 이문용 총괄사장 기념사에서 "1986년 하림식품 설립 이후 수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림은 불굴의

의지로 닭고기산업 발전에 큰 획을 그으며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며 "하림 30년 역사를 통해 얻어진 경험과 지혜를 기초로 임직원들의 끝없는 도전과 개선을 더해 백년을 향한 큰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림그룹 김흥국 회장은 회고사에서 "이무리 거센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깊은 뿌리와 튼실한 줄기를 갖게 되었으며 하림의 통합경영과 품질관리 시스템은 세계 어느 기업과 견주어도 손색을 없을 만큼 높은 완성도를 갖고 있다"며 "하림의 30년의 역사와 선도기업의 명성에 걸 맞는 경영품질을 만들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더 큰 미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세인식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확정

농식품부·전북도·익산시·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 투자 협약

(주)세인식품이 11일 익산시청 홍보관에서 농식품부, 전북도,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투자약해 각서 및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 체결로 (주)세인식품은 하림식품, 조은건강, 에이젬시스템, 삼보관지 등 국내 15개 기업과 외부 기업인 프라하의 고틀에 이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17번째로 입주를 확정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고양근 세인식품 대표, 최호중 농식품

부 과장 김동규 전북도 과장 최호중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장, 김호범 산업단지관리공단 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2007년 설립된 (주)세인식품은 익산시 왕궁면에 소재한 채소 절임식품 생산 전문기업으로 국내 우수 치킨 가맹점에 절임 무를 공급하고 있다. 최근 수요량 증대로 사업 확장을 필요로 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면적 3,648㎡를 분양 받아 올해 11월 생산 시설을 착공할 계획이다.

고양근 (주)세인식품 대표는 "식품

시장의 성장잠재력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업지원 시스템에 매력을 느껴 입주를 확정했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글로벌 네트워크·연구개발·마케팅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현을 시장은 (주)세인식품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적극 환영한다. 세인식품은 물론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해수청, 비응항 해양환경개선사업 추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종빈)은 11일 비응항 일대에 버려진 어구, 쓰레기로 인한 해양오염예방과 물양장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비응항 일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응항은 현재 어선 및 부선의 접안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나 비응항 곳곳에 쓰레기, 어구, 앵커, 철기재 등 17건이 불법 투기·방치되어 수산물 하역을 위한 접안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방치된 폐기물 주변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해 부두이용자 및 관광객의 혐오 유발 및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산해수청은 비응항 수협 위관장 주변 및 물양장에 버려진 방치물을 일제 제거하는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며 비응항에 방치한 쓰레기, 어구, 앵커, 철기재 등은 오는 11월3일까지 소유자가 자진 수거·제거해야 한다.

이 기간까지 자진수거·제거 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로 간주하여 11월 4일부터 군산해수청에서 직권처리 후 소유자에게 처리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군산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 비응항대청소 등 해양정화활동과 지속적인 해양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청결한 해양환경 확보와 해양관광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의회,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 돌입

군산시의회 제198회 임시회가 19일 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과 의원발의 2건 등 총 1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하고 부서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동환 의

원이 발의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및 관리조례안과 신영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신경용 의원이 제안한 '절대농지 해지 방치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을 민정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의장,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으며, 방경미·설경민 의원의 5분 발언이 이어졌다.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은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인 만큼 한해의 시정실적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되는 사업들을 철저히 확인해 시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를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 특산품 전 세계에 알리다!

웅고집영농조합 감사장·명예시민장 수상

웅고집영농조합(대표 이기원)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가든스퀘어 물에서 열린 2016 다민족축제에 참여해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영립으로부터 감사장과 가든그로브 시장 바오응우로부터 명예시민장을 수여 받았다.

오렌지카운티 한미 축제재단이 주관한 2016 다민족축제는 한인들과 다민족 시민들과의 교류의 장으로, 한국 우수기업들의 상품을 알리고 한국의 문화·전통을 소개하는 축제이다.

웅고집 영농조합은 다민족축제에 참여해 군산 특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및 다민족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지역사회 문화적 다양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웅고집영농조합 이기원 대표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군산 특산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세계에 군산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한국지엠군산공장

온누리 상품권 1억8천만원 구매 협약

군산시가 11일 한국지엠군산공장(주), 군산상인연합회와 함께 온누리 상품권 1억8000만원 구매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친체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문동신 군산시장, 한국지엠군산공장 김선홍 본부장, 한국지엠부군산지회 성국선 지회장, 군산상인연합회 복태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지엠군산공장(주)은 총 1억8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내년 설에도 상품권 구입의사를 밝혔다.

군산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협력으로 동반 성장의 기틀을 다지고,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대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입으로 서민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에 힘을 실어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소방서-전북서부보훈지청

일일 명예익산소방서장 위촉·업무 체협

익산소방서(서장 김석용)는 11일 이우실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이 일일 명예익산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소방서 업무를 체협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익산소방서와 전북서부보훈지청 상호간 '일일 명예기관장' 위촉식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소통·공유·협력을 통한 정부 3.0 실현에 동참하고,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소방행정 구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서 시행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이우실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은 전북서부보훈지청 2층 호국영웅실에서 상 호간 명예기관장 위촉식을 하고, 익산소방서로 이동 한 후 소방현황 및 주요업무 성과와 특수시책을 보고하는 것으로 일일 명예소방서장의 임무를 시작했다. 지역사회의 구급차량에 응급처치 현장을 체험하기도 했다.

이우실 일일 명예소방서장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귀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실시 조례안 상정

군산시가 민선6기 핵심 공약사업인 어린이행복도시 조성과 관련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제1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지난 5월부터 아동의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한 아동 영향평가와 아동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 시단위 최초로 아동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아동영향평가란 아동과 관련된 법·정책·사업 등이 전체 아동 또는 특정집단의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게 되는 영향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과 제도적 평가체제를 갖추어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

성별영향평가가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효율적 정책 수행에 기여한 것과 같이, 아동영향평가 조례가 시행되면 어린이 권리증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문정곤기자